

업계동향

LG產電(株), '97年 매출 2조원 목표

LG產電(株)(代表: 李鍾秀)는 「2005년 산업용 전기·전자분야 GLOBAL TOP 10」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97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매출 목표를 작년 대비 18% 신장한 2조원으로 정하고 투자를 2,600억원으로 책정하는 등 비전 달성을 위한 공격적인 사업 목표를 수립하였다.

매출 목표 2조원은 국내 산업용 전기, 전자 분야 최초의 획기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로써 비전 달성을 위한 제 2 도약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관련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등 LG산전은 물론 업계 전체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LG산전은 이러한 '97년 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 방침으로 "글로벌화의 본격 추진, 현장 중심의 혁신 가속화, 핵심 기술 확보 및 신사업의 적극 전개, 도전과 성과의 문화 정착"등 4가지 항목을 정했다.

특히 금년은 합병 2차년도로서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해외 법인의 매출이 가시화 된 데에다 신사업의 안정적인 성장 등 경영 내부요인이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화의 가속화'와 '신사업의 적극 전략을 양대 전략으로 삼아 질과 양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영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글로벌화의 전개 방향으로 대련,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현지 생산 법인을 조기에 가동하며 중국, 동남아 등지에 판매, 서비스 법인을 신규 설립하여 매출로 연계시킨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 21개의 해외 지사, 법인이 '97년에는 총 26개로 늘어나 세계 주요 지역에 해외 거점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해외 사업분야의 매출도 전체 매출의 16%인 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투자의 경우는 전년대비 40% 증가한 2,600억원(시설 1,500억원, R&D 1,1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매출액 대비 13%로 동종 업계의 최고 수준의 획기적인 투자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핵심역량의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조기 투자라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시행하게 된다.

시설투자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주요도시의 물류센터 건설, 민간기업 최초의 전력기기 제품 TEST를 위

한 대전력 연구시험소 건립과 초고압 가공조립실 신축 등이며, R&D의 경우는 신사업 및 글로벌 제품에 초점을 맞춘 보유기술심화, 미래 차별화 기술 확보, 해외 R&D 거점확보 등의 내용을 주축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부 활동으로는 현장중심의 혁신 활동을 가속화 시키며 「도전과 성과」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업의 집중 및 한계사업 철수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曉星重工業(株), 765kV 철탑 시험장 준공

曉星重工業(株)(代表:柳鍾烈)가 동양최대 규모의 765kV 철탑하중시험장을 준공함과 동시에 하중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효성중공업의 765kV 하중시험장은 50억 원을 투입, 3천여평 규모에 건설됐으며 최첨단 계측 제어 설비를 보유, 컴퓨터에 의한 중앙집중제어방식으로 통제하는 시험체제를 갖춰, 신속하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등 정확한 테스트와 검증이 가능하다.

특히 시험장은 지상높이 85m, 최대모멘트 4만톤까지 모든 철구조물에 대한 수직·수평·인장하중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규모면에서 국내 최대규모이다.

또한 시험장은 反力철탑3기와 테스트 베이스 1기를 건설할 때 기초공사를 튼튼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를 3천6백m²에 1만여톤을 쏟아부을 정도로 완벽한 설비를 구축했다.

이번 실시된 하중시험은 설치후 자연환경 상태에서 철탑에 가해지는 수직력, 수평력

및 인장력을 시험·측정하기 위해 설계조건 1백%까지의 내하시험과 1백%부터 5%식 비율을 증가시켜, 하중을 증가를 시키는 파괴시험순으로 진행됐다.

효성중공업은 신태백~신가평 강관철탑을 납품하게 되는데 이번 시험성공으로 철탑 품질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효성중공업은 현재 765kV 사업에는 시공(신서산 3공구), 765kV급 변압기 및 차단기부품, 765kV 내장형철탑 및 현수형철탑을 자체적으로 설계·제작하는 등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최고 중전기업체로 중전기산업을 선두적인 위치에 서서 이끌고 있는 동사는 765kV 사업이 국내 전력산업 전반의 기술력을 한단계 향상시키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 이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그동안 수출 실적으로는 '72년 대만 전력청에 161kV 철탑(8천8백97톤)과 '82년에 방글라데시에 345kV 철탑(6천2백톤)을 공

급한바 있다.

이번 765kV 철탑생산에 본격 나서게 된 효성중공업은 이를 발판으로 삼아, 동남아시아 시장등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이번에 준공된 조치원공장은 765kV 격상

송전사업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력과 설비를 대폭 보완하여 '94년 7월에 서울 태능에서 이전했다.

또한 효성중공업은 '95년말 日本 나소전기 철공(주)와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 철탑의 설계·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해 왔다.

LG電線(株), '96 매출 1조 4천5백억원 기록

LG電線(株)(代表: 權炆久)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약 10% 정도 늘어난 1조 4천5백억원을 기록했다.

LG전선은 지난해 처음 매출 1조원을 돌파한 전선CU가 1조 7백억원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시판부문의 호조와 해외 수요 증가에 힘입어 당초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게 됐다.

해외부문 매출은 중동과 동구지역 등지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과 함께 해외 송전망과 통신망공사 수주가 늘면서 전체 매출의 25%를 차지해 내수부문의 성장률을 큰 폭

으로 앞질렀다.

전선부문은 당초 '95년 말까지 치솟았던 국제 전기동 가격이 지난해 들어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면서 거품현상 제거와 함께 매출 성장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품목인 해외부문의 SOC 확충에 따른 수요 증가와 부품, 고무등 신규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초고압 지중송전공사, 태국 송전망공사 등 굵직한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내수부문의 성장둔화를 만회하는 등 경영핵심 통해 무난히 달성하게 됐다.

(株)成進電機, GCB 사업 진출

변압기 전문제조업체인 (株)成進電機(代表: 李鍾漢)가 SF6 가스차단기(GCB) 시장에 신규 진출했다.

성진전기는 사업다각화 일환으로 지난해 7월 25.8kV 옥외용 SF6 가스차단기 개발에 착수한 후 그해 10월 한전 개발채택을 완료,

국내에서는 두번째로 국산화에 성공하는 개가를 올렸다.

기술제휴선은 프랑스 슈나이더그룹의 머린제린으로 연구개발비는 약 3억6천여만원을 투입했다.

현재 월 30대 생산능력을 갖춘 생산라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성진전기는 본격적인 양산시기를 1월말로 잡고 있다.

SF6 가스차단기는 기존 진공차단기에 비해 절연성능이 우수하고 진공차단기에서 발생하는 개폐써지 현상이 발생치 않고 소형경량화가 가능한 차단기로 Medium Voltage 이상의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다.

성진전기가 개발한 차단기는 기밀구조의 완벽성을 기해 기존제품의 문제점을 크게 개선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진전기 차단기는 PURRER ARC 소호방식을 채택, 대전류에서 소전류까지 고장전류를 완벽하게 차단시키는 등 성능을 향상시켰고 소전류차단시 유해한 개폐서지가 전혀 발생치 않는 Surge-ess 타입이라는게 큰 특징이다.

또한 투입 및 차단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류의 재단, 재발호, 재점호 현상에 의한 개폐과전압이 발생하지 않아 써지에 의한 몰드변압기, 전동기, 콘덴서, 리액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차단기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차단부의 기밀구조는 IEC 56-1987 부록 EE에 적합한 밀봉압력구조로 가스누설 보증수명을 30년 이상으로 연장시켰다.

이밖에는 가스압력저하시압력 스위치의 작동으로 차단기를 전기적으로 쇄정시키고 외부신호를 송신할 수 있어 사전점검이 가능하고 차단부가 완전 밀봉되어 있어 보수점검이 필요없는 것도 장점이다.

성진전기는 지난해 11월 기존 전력용 변압기와 GCB에 대해 영국전력공사의 ISO 인증기관인 EAQA로부터 ISO 9001 인증을 획득, 국내외에 높은 기술력과 품질시스템을 인증받았다.

李鍾漢 사장은 차단기개발과 ISO 9001 인증 획득을 계기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품질경영을 적극 도입, 신뢰받는 기업으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三進變壓器(株), ISO 14001 획득

三進變壓器(株)(代表: 金文煥)가 업계에서는 최초로 환경경영시스템인 ISO 14001을 획득했다.

삼진변압기는 지난해 5월 중기청으로 부터 ISO 14001 시범 기업으로 선정된 후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에 매진해 왔고 지난해에

능률협회로부터 인증서를 취득했다.

삼진변압기는 세계무역질서가 환경보전과 기술경쟁력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경쟁력 있는 회사로 도약하는 경영도구로서 ISO 14001 인증을 획득, 업계를 선도하는 회사의 면모를 다시한번 과시했다.

김문환 사장은 『경기가 불투명할 뿐더러 중소기업 입장에서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은 시기상조라는 주위의 비난도 받았으나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기업경

쟁력 강화에 절대적인 도구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기업입장에서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선진국의 WTO 무역체제를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거양득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스템이 환경경영시스템이라는 삼진변압기는 앞으로 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자사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회원 신규가입 및 변경사항 안내 ♣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FAX	주생산 품목	비 고
성 립 계 전	김병기	(02) 896-9072	(02) 896-94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용 안전장치 • 발전소 시험장치 • 통신용 장비 	신규 가입
미 미 전 자 (주)	원정화	(02) 3216-3178	(02) 3216-17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기구 	신규 가입
(주)인텔리시스템	장용기	(0345) 499-6618	(0345) 498-73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정전전원장치 • DC 정류기 	본사 이전